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주의] 주관식이 있음.

1) 골라.

(가) 옛날에 착한 본성을 세상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기 집안을 바로 잡았으며, 자기 집안을 바로 잡고자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닦았고, 자신의 몸을 닦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였다.

(나)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현상은 괴로움이다. 모든 법(法)들은 영원한 자아가 없다. 이러한 지혜에 의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 청정함에 이르는 길이다.

<보기>

- ㄱ. (가)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의 실현을 강조한다.
- ㄴ. (가)는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무위(無爲)의 삶을 강조한다.
- ㄷ. (나)는 실체로서의 내(我)를 깨닫기 위한 노력을 중시한다.
- ㄹ. (나)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로운 삶을 살 것을 중시한다.

2)

07 갑, 을 사상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회의 기본적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자존감 등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을: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n 시간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 시간 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n 시간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 ①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위임해야 하는가?
- ② 개인의 타고난 재능의 분포를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③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하고 분배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가?
- ④ 소득과 부의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 ⑤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는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하는가?

3)

11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모든 생명을 도와 줄 필요성을 인정하고, 살아 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을: 상당수는 지구와 인간 사이에는 지구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깊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껴 왔다. ... (중략) ... 철학은 도덕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는 지구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죽은 것'으로 간주해 왔던 지구도 사실은 일종의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구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 ①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토지와 물을 포함한 대지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을은 자연 전체보다는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⑤ 갑, 을 모두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4) 골라.

현세에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낮 동안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한다. 태만과 향락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일에 대한 행위만이 분명하게 계시된 신의 뜻에 따라 신의 영광을 더하는 데 봉사한다.

<보기>

- ㄱ. 금욕적 삶을 통한 부의 축적은 정당하다.
- ㄴ. 노동은 오직 신에 대한 속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 ㄷ. 직업 노동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 ㄹ.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는 것이 직업의 최대 목표이다.

5)

04 (가)~(다)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 (다)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인간은 그 마음을 본받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 ① (가)는 하늘을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로 이해한다.
- ② (나)는 불성(佛性)을 지닌 인간만이 소중하다고 여긴다.
- ③ (다)는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다.
- ④ (가), (다)는 하늘을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 존재로 규정한다.
- ⑤ (나), (다)는 자연을 무목적적 질서의 체계로 간주한다.

6)

08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저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을 할 때 시민은 국가에게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을: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 ①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 ② 공동선의 증진보다 개개인의 생명권을 더 존중해야 하는가?
- ③ 모든 인간은 생명의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
- ④ 국가는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지니는가?
- ⑤ 사형 집행은 구성원들의 합의와 무관한 국가의 고유 권한인가?

7) 골라.

(가) 갑: 좋은 리듬, 좋은 말씨, 조화로움이 담겨 있는 예술 작품은 청소년에게 좋은 성격을 갖게 하지만, 나쁜 리듬, 나쁜 말씨, 부조화는 나쁜 성격을 갖게 한다.
을: 예술가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순간, 그는 예술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독창성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필요 없다.

(나)

<보기>

- ㄱ. A: 예술 작품에 대한 선별과 검열을 인정하는가?
- ㄴ. A: 예술은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ㄷ. B: 예술은 미적 가치 그 자체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 ㄹ. B: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하는가?

8)

02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각자의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

을: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몸에도 여러 장인들이 만든 것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 ① 직업은 타고난 신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② 각자의 직업 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 ③ 사회 봉사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직업은 신의 소명으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이다.
- ⑤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교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9)

01 (가), (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은 도덕적 행위를 파악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묻기 이전에 '선', '악'이라는 말이 검증 가능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 (나) 우리는 삶에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론적 윤리론, 공리주의 윤리론 등 여러 도덕 원리들을 생애, 생명, 직업 등의 현실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보기>

- ㄱ. (가)는 '해야만 한다는 것'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 ㄴ. (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없다고 본다.
- ㄷ. (가)는 (나)보다 현실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적다.
- ㄹ. (나)는 (가)에 비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06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해결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드라 하늘에는 진주 그물이 있고, 그 그물은 잘 정돈되어 있어 만일 어떤 한 진주를 주시한다면 그것 속에 다른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계 내의 각각의 대상들은 단지 그것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대상들을 서로서로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각각의 대상은 서로 다른 것의 대상이 된다.

<문제 상황>

환경 위기 시계란 전 세계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다.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계는 0~3시(양호), 3~6시(불안), 6~9시(심각), 9~12시(위험)별로 위기 수준을 나타낸다. 2013년 한국의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31분이고, 전 세계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19분이다. 여전히 환경 위기 시계는 9시 이후인 위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기>

- ㄱ. 자이는 여러 조건에 의해 형성됨을 깨달아야 한다.
- ㄴ.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 ㄷ. 문명을 버리고 무위(無爲)의 질서 체계를 따라야 한다.
- ㄹ.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의(道義)로써 자연을 관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08 다음은 A에 대한 어느 학생의 노트 필기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습 주제 : A의 의미와 실천

1. A의 구분과 의미

(1) 소극적 A

- 뜻 :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 예 : 빈곤, 기아가 없는 것㉡

(2) 적극적 A

- 뜻 :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등 모든 폭력이 제거된 상태㉢
- 예 : 사상의 차별, 정치적 억압이 없는 것㉣


2. A의 실천

(1) 전쟁 방지 노력 : 외교적 소통을 우선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 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의와 배려 사이의 대화는 양성(兩性) 관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여성들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성숙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키고, 발달의 맥락적 성격을 알게 해 줍니다. 이와 같은 관점의 확장을 통해 인간 발달에 대한 변화된 이해와 인간의 삶에 대한 생산적인 관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도덕적 이론 안에 배려의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② 여성들의 목소리를 도덕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남성과 여성이 지닌 도덕성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도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⑤ 정의와 배려의 윤리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13)

10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심(一心)의 원천은 유(有)와 무(無)를 떠나 홀로 청정하며 삼공(三空)*의 바다는 진(眞)과 속(俗)을 융합하여 맑고 깨끗한 것이다. 맑고 고요하게 융합하였지만 하나인 것은 아니요, 홀로 청정하여 양극을 떠났다고 해서 중간도 아니고, 중간이 아니지만 양극을 떠나 있는 것이다. 자성(自性)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완전히 없다고 여기지도 않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해서 곧바로 자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중략>... 둘을 융합하였지만 하나는 아니므로, 진(眞)과 속(俗)이 세워지지 아니한 바가 없고 염(染)과 정(淨)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 삼공(三空) :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으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음을 의미함

<보기>

- ㄱ. 나의 본질적 실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ㄴ. 서로 다른 주장도 그 근본은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 ㄷ. 각 종파의 이론이 지닌 상대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 ㄹ.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19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모든 사회적 가치들 혹은 가치들의 모든 집합이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병: 강제와 부정의가 없이 어떤 대상물에 노동을 가하여 최초로 획득하거나 개인 간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이전된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① 갑: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기본권 침해를 용인해야 한다.
- ② 을: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보편적 가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③ 병: 개인의 정당한 자유 행사 과정에 국가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 ④ 갑, 을: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유 재산을 철폐해야 한다.
- ⑤ 을, 병: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15) 골라.

갑: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세 계층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을 때 정의롭게 된다.
 을: 국가는 경쟁, 불신, 공명심으로 인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만든 것이다.

<보기>

- ㄱ. 갑: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데 필요한 덕이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데 필요한 덕과 다르지 않다.
- ㄴ. 갑: 통치자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ㄷ. 을: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적 합리성에 근거한 인위적 산물이다.
- ㄹ. 을: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지녀서 사회적 재화를 모두와 공유해야 한다.

16)

18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오직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을: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려면 반드시 의무로부터 행해져야만 한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한 필연적 행위이다.

(나)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① A: 도덕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하는가?
- ② B: 행위의 도덕성은 그 결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
- ③ B: 쾌락의 양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인가?
- ④ C: 동정심이 행위에 도덕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⑤ C: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인가?

17)

2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천자가 어질지 않으면 사해(四海)를 보존하지 못하고, 제후가 어질지 않으면 사직(社稷)을 보존하지 못한다.
•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나) <문제 상황>
군주의 푸추간에는 고기가 넘쳐 나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 차 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핏빛과 굶주려 들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잔뜩 널려 있다. 올곧은 신하들의 간언(諫言)이 전혀 수용되지 않으며,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 사직이 위태롭다.

- ① 질서 유지에 필요한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 ② 군주의 본성[性]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백성들이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
- ④ 백성들이 선한 본성을 갖추게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 ⑤ 인의(仁義)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군주를 세우야 한다.

18)

14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값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여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을: 중앙집권적 분배관 상상할 수 없고,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분배를 결정하는 집단은 존재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계약의 시행을 보장하는 등 극히 제한된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
병: 어떠한 사회적 가치 X도 다른 사회적 가치 Y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X의 사회적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이 Y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이유와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① 갑: 분배를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 ② 을: 자연적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병: 모든 재화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④ 갑, 을: 사회적·경제적 재화의 불균등한 분배는 정의롭지 못하다.
- ⑤ 을, 병: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분배가 필요하다.

19)

19 갑, 을 사상가가 병의 입장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남녀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관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배려 윤리가 보여 주는 진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인간의 경험에 대해 더욱 발전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을: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원칙을 아는 것보다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유덕한 사람이란 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병: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법칙뿐이며 주관적으로 보면 나의 모든 경향성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보기
ㄱ. 갑: 공감이나 동정심이 도덕의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하고 있다.
ㄴ. 을: 도덕적 선을 지향하는 성품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ㄷ. 갑, 을: 연대성이나 관계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ㄹ. 갑, 을: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관심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골라.

•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된다.
• 상비군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끝도 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군비의 과잉 지출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보다는 오히려 단기간의 전쟁이 선택된다.

보기
ㄱ. 자국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허용되는가?
ㄴ. 전쟁 이전에 평화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는 없는가?
ㄷ. 상비군의 존재는 영원한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인가?
ㄹ. 적대 행위의 중단을 평화 상태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할 수 없는가?

21)

20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인가?
- ㄴ. 시민 불복종은 경고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위협일 수는 없는가?
-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 변혁을 목표로 행해져야 하는가?
- ㄹ. 시민 불복종은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다 골라.

갑: 사회에서 각 개인은 공동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신의 소명을 받았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의 특별한 분야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혼돈과 무질서를 피할 수 있다. 신은 정직하고 건실한 노동을 신 자신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
 을: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노동 생산물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낫선 독립적인 힘으로 노동자를 지배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분업으로 인해 일면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에만 의존하게 된다.

<보기>

- ㄱ. 갑: 목상적인 삶이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노동보다 더 낫다.
- ㄴ. 갑: 노동과 신앙을 분리하여 합리적인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 ㄷ. 을: 기술적 분업의 확대는 인간의 전면적 능력 발달을 저해한다.
- ㄹ. 갑, 을: 참된 노동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23)

8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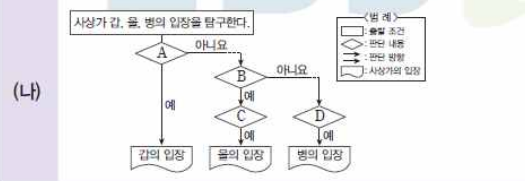
갑: 사이버 공간에서 나는 원하는 대로 자기 다른 여러 행위자로 행세할 수 있다. 그런데 사이버 자아의 정체성이 강화될수록 본래 자아의 정체성은 점차 무력해진다. 더욱이 다수의 사이버 자아로 활동할 경우,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어느 것이 나 자신인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러 자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실험하며, 이러한 실험을 통해 현실 세계의 본래 자아가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실적 자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다양한 자아로 인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 ① 갑: 사이버 공간의 다중 정체성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
- ② 갑: 사이버 자아에 대한 몰입은 현실 세계의 본래 자아를 약화시킨다.
- ③ 을: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자아를 통해 현실적 자아가 성숙될 수 있다.
- ④ 을: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자아는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자아를 가져온다.
- ⑤ 갑, 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세계와 달리 다양한 자아가 나타날 수 있다.

24)

9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전통 윤리의 가르침 만으로도 미래와 현재의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생태계 파괴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을: 쾌고 감수 능력은 적어도 이익 관심을 갖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며, 우리는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병: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며, 모든 도덕 행위자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들의 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보기

- ㄱ. A: 인간 중심 윤리만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ㄴ. B: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져야 도덕적 고려를 받을 수 있는가?
- ㄷ. C: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는가?
- ㄹ. D: 인간 종은 다른 모든 종과 함께 상호 의존 체계의 통합적 구성 요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25)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의 생득적 인격성은 그가 사형과 같이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형벌을 선고받을지라도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에서 그를 보호해 준다.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 형벌의 범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을: 인간의 정신에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지속도이다. 종신 노역형과 같이 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형벌의 목적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 ① 갑: 타인을 살해한 범죄자는 사회에서 모든 인격이 상실된다.
- ② 갑: 형벌의 질은 응보법을 통해, 형벌의 양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③ 을: 형벌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비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④ 을: 형벌은 시민의 이익이 아닌 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형벌은 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원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26)

13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이며,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을: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며, 개인의 소유 권리 침해는 포함한다. 병: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을 인격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생존 조건인 노동 양식을 지양해야만 한다.
(나)	

【 보기 】

ㄱ. A, F: 사회적 재화의 분배를 위한 하나의 보편적 기준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ㄴ. B: 재화의 분배 과정이 정의로우도 결과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ㄷ. C, E: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적 소유의 철폐가 불가피함을 간과한다.
 ㄹ. D: 필요에 따른 분배가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를 침해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7)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음악은 군주와 신하, 윗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함께 들으면 곧 화합하고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게 된다. 음악이란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고 알맞게 조화시키는 규범이며, 사람의 감정상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을: 음악은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군주의 일과 부합되지 않고, 백성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 지금 관리들이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음악을 금하여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① 갑: 음악에는 감정을 순화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역할이 없다.
- ② 갑: 음악은 도덕적 교화를 이끌어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을: 음악은 즐거움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백성에게 해롭다.
- ④ 을: 음악을 유용성의 관점이 아닌 미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 ⑤ 갑, 을: 음악은 도덕적 가치가 아닌 쾌락적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28)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사회 계약론에서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 다. 이처럼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장막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할 때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 ① 원초적 입장의 상황은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②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 우선된다.
- ③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독립적 기준이 없어도 공정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④ 유사한 수준의 능력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은 유사한 수준의 성공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⑤ 무지의 장막 속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을 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모든 일반적 사실들을 안다고 가정된다.

29)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불과하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는다.</p> <p>을: 우리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각각의 생명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병: 우리는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옳다.</p>
(나)	

- ① A: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② B, E: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③ C: 개체 각각이 지닌 고유한 선을 보호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D: 자연 자체에 대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함을 간과한다.
- ⑤ F: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30)

4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본받는다. 도는 항상 무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天]을 알게 된다.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키우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보기

- ㄱ. 도(道)의 관점에서 시비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가?
- ㄴ.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 ㄷ. 성(性)을 준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는 삶이 이상적 삶인가?
- ㄹ. 타고난 본성을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1)

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안락사, 생명 복제, 기후 등 사회적 관심사를 윤리학의 주제로 삼아 도덕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윤리학이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서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윤리학은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성을 생물학적 진화 이론에 근거해 설명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도덕적 관습이나 규범의 객관적 기술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도덕규범을 경험적 사실로 간주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도덕 원리를 근거로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32)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행복은 인간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며, 행복을 증진해 주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리주의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격이 전반적으로 도야되어야 한다.

을: 행복을 소망하고 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 본성상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의무인 목적이 아니다. 의무가 문제일 때에는 행복을 전혀 돌보지 않아야 한다.

보기

- ㄱ. 갑: 사회적 행복을 증대하지 못하는 희생도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ㄴ. 갑: 도덕적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 ㄷ. 을: 자연적 경향성은 이성이 수립한 법칙에 순응하는 한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 ㄹ. 갑, 을: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도덕적 행위는 양립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33)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이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는 민주 체제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이론은 합법적으로 확립된 민주적인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역할과 적합성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연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종류의 항의나 저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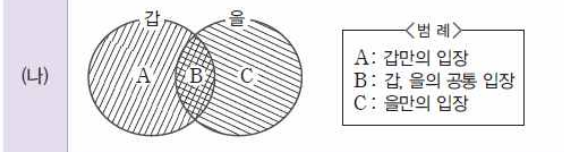
|| 보기 ||
 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와 법의 부정적인 정도는 서로 무관하다.
 나.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다.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라.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사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불복종의 주체에게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34)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하는 서열적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이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 큰 사회적·경제적 이득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을: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 보기 ||
 가. A: 가상적 상황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하다.
 나. B: 타고난 운 자체는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다. B: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사유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라. C: 공리의 원리를 분배 정의의 원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 ④ 나, 라 ⑤ 다, 라

35)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 ①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 연맹에 주권적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 ② 국가 간의 영구적인 평화는 평화 조약의 체결만으로도 가능하다.
- ③ 낯선 이방인이 평화롭게 행동해도 우호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다.
- ④ 비민주적인 국가는 세계 시민법을 통해 공화 정체로 변화해야 한다.
- ⑤ 영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 연맹의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36)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오직 보복법만이—그러나 물론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을: 형벌은 범죄자의 정신에 가장 지속적인 인상을 주면서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 종신 노역형이 사형에 비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 보기 ||
 가. 갑: 형벌은 범죄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나. 을: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는 수단이어야 한다.
 다. 을: 형벌은 어떤 경우에도 한 시민에 대한 다수의 폭력 행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
 라. 갑, 을: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37)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국가의 모든 사람이 부여한 권한으로 주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강한 권력과 힘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에서 나오는 공포에 의해 그는 모든 사람의 의사들, 국가 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의 적에 맞서 단결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을: 국가의 주된 목적은 시민의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동의를 통해 인정된 법률이 없고, 올바른 판결이 내리지더라도 이를 집행할 권력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리와 기원을 볼 수 있다.

- ① 갑: 절대 군주와 인민은 서로 동등하게 자연권을 양도한다.
- ② 갑: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한 자연적인 산물이다.
- ③ 을: 자연법의 지배는 국가 형성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을: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자의적 지배권이다.
- ⑤ 갑, 을: 개인의 생명과 자유는 자연 상태에서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역대 ebs 수완 모고 선별 (짝수년) 1(24제) 답

- 1) 가, 르
- 2) ④
- 3) ⑤
- 4) 가, 나
- 5) ③
- 6) ④
- 7) 가, 나
- 8) ②
- 9) ②
- 10) ①
- 11) ②
- 12) ③
- 13) ⑤ 원효-불교, 일심, 화쟁을 알면 선지 조합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고 있어야 함. 객관식은 선지 조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14) ③
- 15) 가, 나, 다
- 16) ②
- 17) ⑤
- 18) ③
- 19) ④
- 20) 가, 다, 르
- 21) ①
- 22) 나, 르
- 23) ④ 독해 문제 치고는 괜찮은 듯
- 24) ④
- 25) ⑤
- 26) ③
- 27) ②
- 28) ②
- 29) ②
- 30) ③
- 31) ⑤
- 32) ⑤
- 33) ③
- 34) ②
- 35) ⑤
- 36) ⑤
- 37) ⑤